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겨울숲

겨울숲은 고요하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지만 숲은 소란스럽지 않다. 흔들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겨울의 끄트머리, 더 이상 비울 것이 없어 보이는 숲은 오늘도 햇살 한 줌으로 제 몸을 또 비운다. 그토록 많은 겨울이 지나갔건만, 너와 나는 털 끝 하나 줄었던 적이 없으니…. 우리의 숲은 언제쯤 저 겨울숲을 닮을 수 있을까. 언제쯤 흔들릴 것이 없는 고요한 시절과 닿을 수 있을까. 코앞에 봄은 또 와있고 차가운 숲 너머에는 안타까운 부처의 그림자가 보인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④ 출가 기쁨을 외칠 수 밖에

'바드리카' 비구의 외침… "출가 후 자유 천지"

처음으로 스님이 된 바드리카 비구는 조용한 나무 밑에 홀로 앉아 마음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참으로 즐겁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하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곁에서 같이 있던 스님네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초심자 도반은 밤중에 왜 소리를 지르지?"

스님들이 바드리카의 소리친 뜻을 알 리 없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만 바드리카의 생각을 아셨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바드리카는 나무 밑, 무덤가에 있으면서 밤중에 즐겁다고 소리쳤다. 무슨 뜻인가?" 바드리카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즐겁고 기뻐서 외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하인들을 시켜 저의 집 안팎을 칼과 몽둥이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키면서도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몸의 터럭이 일어났지요. 누가 와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무와 무덤 사이에 앉아 있으나 밤중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자유 천지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구나. 너는 그런 믿음에서 출가를 했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기쁘다."

부처님은 바드리카 비구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드리카 비구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석가족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인 아나율과 마하남 형제는 이 일을 두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마하남이 가정에 남고, 아나율이 출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쁨을 못 이긴 아나율이 친구 바드리카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그 생각일세. 날마다 졸라보지만 어머니가 허락을 않으셔."

집으로 뛰어든 바드리카가 어머니를 또 졸랐습니다.

"출가라니? 안 된다!"

어머니는 또 거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석가족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를 하겠대요. 우리 집, 우리 형제만 남았어요."

간청에 못이긴 어머니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아나율의 어머니께 가서 물어보아라. 아나율을 출가시킨다면 너도…."

어머니는, 아나율의 어머니가 절대로 아나율을 내 놓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나율이 저 바깥에 와 있어요, 아나율은 그의 어머님께 출가 허락을 받고 온 걸요."

이렇게 하여 같은 석가족 아나율과 바드리카가 출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림 · 강병호

"출가를 하면 계율에 얽매이게 된다. 얼마쯤 놀이를 즐기다 입산을 하자."

"아니야."

"그럼 하루라도…."

이리하여 출가를 결심한 석가족 청소년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비라국 왕손이었습니다. 아나율, 바드리카, 난디(難提), 쿰빌라(金毘羅), 난다(難陀), 발난타(跋難陀), 아난이 모였습니다. 아난은 아직 열 살이 못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말썽꾸러기 데바닷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석가족 청소년은 모두 여덟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코끼리와 말을 타고 놀이동산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수타족 우바리가 따랐습니다. 우바리는 석가족 청소년의 머리를 깎아 주는 이발사였습니다.

놀이를 마친 석가족 젊은이들은 보배 의복과 몸을 꾸몄던 영락을 거두고, 타고 온 말과 코끼리를 모아서 가난뱅이 이발사 우바리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발사 우바리 님. 그동안 우리 몸을 단정히 꾸며주시느라 수고 하셨소. 우리는 출가를 결심한 몸이니 이 모두가 필요 없게 되었지요. 우바리님이 가지시오."

가난뱅이 이발사가 받은 재산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얻은 우바리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왕손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출가를 하시는데, 왕손님들을 의지해 왔던 이 이발사가 혼자 남아 재산을 지닌들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이발사도 왕손님들과 같이 출가하겠습니다!"

우바리는 얻은 보배 영락과 보배 의복을 여러 개 보자기에 싸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손의 놀이를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배 영락과 보배 의복이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나누어 가지시오. 여기 이 코끼리, 말도 나누어 가지시오!"

얻은 재산 모두를 흩어버린 이발사 우바리는 석가족 청소년을 따라 나섰습니다.

젊은이 일행은 부처님께 가서 머리 숙여 발아래에서 예배를 올리고 한 쪽에 물러서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 아홉에게 계를 내리시고, 우바리를 가장 윗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이들은 비구 스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석가족 젊은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들 출가한 아홉 중 우바리는 계율을 잘 지켜서 부처님 10대제자 중에서 지계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나율은 천안통을 얻어, 천안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드리카는 이름 없는 제자가 된 것이 더욱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분률(四分律)제3권〉

